참여로 강화될 학생회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지상유세

○… 서울캠퍼스는 지난 9일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15일, 18일, 22일 모두 세차례에 걸친 후보자 선거유세 일정 뒤 23일과 24일에 투표를 실시한다. 이에 우리 신문사는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지상유세를 마련한다. (편집자) ○…

배정기 · 최현 후보

나를 찾는 방법으로 나 이외의 것을 생각한다

정 배정기 〈신방3〉

부 최현 〈한의본1〉

■약 력■

73년 전남 여수 출생.
92년 여수고등학교 졸업.
94년 신문방송학과 입학.
94년 제27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으로 입후보.

■약 력■

72년 서울 출생.
91년 단대 부속고등학교 졸업.
91년 한의과대학 입학.
94년 한의과대학 사회부장
94년 제27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으로 입후보.

■공약

1. 8천5백 정회인의 창조력을 담는 "생동하는 창조의 공동체"를 건설합니다.
2. 계열화는 현실입니다. 전제와 원칙이 있는 계열화를 준비합니다.
3. 교수업적평가제의 내실화와 교강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연구하는 대학건설로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4. 형식뿐인 3자협의체, 이제 주인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95년 3자협의체 각 소위원회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5. 해방 50주년 기념 서울-평양 청년학생 한마당을 서울과 평양 청년학생에게 제안합니다.

박동재 · 이상훈 후보

화석화된 이념을 넘어 도구화된 정파주의를 넘어

정 박동재 〈신방3〉

부 이상훈 〈사학3〉

■약 력■

70년 강원도 횡성군 출생
89년 한홍고등학교 졸업.
92년 군입대.
94년 총학생회 정치연대 사업국장 역임.
94년 제27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으로 입후보.

■약 력■

69년 전북 전주 출생.
88년 서울고등학교 졸업.
89년 사학과 입학.
91년 군입대.
94년 총학생회 사무국장 역임.
94년 제27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으로 입후보.

■공약

1. 우리의 전망과 계획을 가지고 학교의 중장기 발전안을 강제한다.
2. 각 과의 발전 전망이 사장된 박연한 계열화를 반대한다.
3. 대학내의 자치대학, 문화, 체육, 학술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4. 과 학생회의 기반한 예산편성 참여로 실험실습비의 효율성을 높힌다.
5. 미래의 희망 민주노총건설투쟁에 노동자와 연대한다.

◇출마의 변◇

"역사는 我와 他의 투쟁의 과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되새기며 저희는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하고 싶어졌습니다. 역사를 짊어지기를 힘겨워하지 않았던 사람만이 역사의 창조자였다는데, 과연 우리는 무슨 근거나 줏대로 역사 속에서 숨쉬고 있는 건지요.

그렇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참 어려운 시대라고들 합니다. 가치관이 혼란하다고도 하고, 사회기강이 문란하다고도 하고… 저희는 그 순간 주위 친구들의 삶의 지혜를 보아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술마시고 하루를 냉소적으로 자위하며 지우고 싶은 마음을 누고, 차라리 따뜻한 풀밭에 앉아 초롱한 눈빛과 정확한 어휘구사력으로 서로의 삶의 문제를 토론해 보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토론해 보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즐기되 왜 즐기는지, 과연 그것이 나의 삶의 질을 얼마나 윤택하게 할 것인지, 무엇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윤택하게 할 것인지 말해보자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대동제는 무엇인지, 과연 객석은 무엇이고 무대는 누구인지, 끝내 우리 학우들은 시혜의 대상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인지 싸워보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인된다는 것은 무엇이며 왜 청년학생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대화해보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대학의 사회적인 기능은 무엇이며 그안의 대학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학생회는 무엇이며 왜 존재하며 일꾼은 어떠해야 하며 사업은 왜 하고 학생회의 역할은 무엇이길래 학생회와 학우들의 간격이 생기는 것인지, 학생회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나아갈 바는 무엇인지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시대의 정신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말하는 것'이 시대정신임을 보두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중의 정치사회적 진출이 두드러지는 이때, 우리 경희라는 대학사회의 구성원들도 그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왔음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여지껏의 학생회가 그 학생회 일꾼만의 학생회, 일꾼만큼의 창조력으로 한계를 드러내었고, 그 반대급부로 호응받았던 실험과 모색은 학생회의 공동체 지향이라는 존재의의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래를 창조해 가고자 하는 대학인의 정신은 오간데없이 헌실재단과 인간관계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신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는 현실분석과, 그 행보의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은채 겉옴을 재촉하는 학생회의 모습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학우들의 생생한 목소리, 그 아우성같은 질서의 외침통에 학생회가 자리해야 합니다.

결코 학생회가 자신의 입장만을 견달하는 것도, 학우들의 목소리만을 단순하게 인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과 학생답게 한다는 것, 그 의미는 행동이 말을 책임지고, 我가 他를 책임지며, 반성이 무뢰일을 책임진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본질을 찾는 방법으로 자신 이외의 것을 생각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생동하는 창조의 공동체, 인간의 도리가 살아 숨쉬는 삶 맞나는 대학사회의 건설에 학우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와 그것들의 미래 창조로서의 의미를 되새기며 과감한 첫발을 내딛어 봅니다.

◇출마의 변◇

안녕하세요? 제27대 총학생회에 입후보한 박동재, 이상훈입니다.

저희는 수락하는 경희에 날개를 다는 심정으로 5개의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 대학 선거의 유행, 막연한 위기의식 고취. 정부의 국제화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대학별 평가에 대비하여 무려 15개가 넘는 방을 차지하는 고서가 경희대 도서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신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계열별 평가제를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계획없고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교수 충원. 그저 충원만 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속에 정부의 정책에 대비해서 학부제를 해야 한다고 막연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 2, 3년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경희의 미래를 저당 잡힐 것인지, 아니면 정부와 자본에 귀속되지 않은 경희인의 대학을 건설할 것인가 입니다.

둘, 학부제를 중심으로 한 단대 재편, 문제는 과의 존폐위기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학과통폐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항공은 삼성, 자동차는 현대'라는 식의 대기업을 육성하는데 대학도 '공과 계열은 한양대, 법학 계열은 고려대'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과계열 대학 지원의 80%가 상위 10개대에 배분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 실험실습비조차 유용하는 과가 있습니다.

한달에 1백90여만원의 조율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피아노 조율이 되지 않는 음대, 장학금을 지불할 돈으로 아외 음악회를 치른 미교과, 각 과의 실험 실습비의 공개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

경희대는 26%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다닙니다. 단대별 책정은 각 학장의 파워에서 결정나고, 각과의 학과장님은 독선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래를 말합니다. 계열화를 말하고, 계약교수제를 말하고, 국제 대학의 전망을 이야기합니다.

넷,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과의 선거서료진에 예산획득 부정계획 있습니까?

상반기 학자투쟁에서 상층단위만의 협상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귀중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예산편성 참여권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책정된 등록금에 대한 차후 검토와 그에 따른 인상률 조정이 아니라,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자재 및 교수 충원, 발전계획안을 가지고 예산요구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과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요구사항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은 간부들에게 요구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것이 조직화되지 않는다면 결코 올바른 등록금 투쟁은 없습니다.

다섯, 학교 당국, 타도의 대상입니까? 협력의 대상입니까?

교육개방에 맞서는 국가의 정책은 공교육 파탄의 책임을 사학 재단에게 맡기겠다는 종합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학 재단 또한 교육개방 앞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외든, 타외든 투자를 계획하지 않을 수 없는 학교 당국, 대학의 발전에 재정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무기력한 현실, 학교 당국은 타도의 대상입니까? 학교 발전의 주체입니까? 학생들 눈치 보기식의 투자와 등록금 몇 %인상에 따른 예산확충으로 더이상 경희의 내일은 없습니다. 밉든, 곱든 재단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공동 운명체입니다.

발전을 바라보는 근거있는 논거와 대안으로 구성원의 동력에 기반한 발전안 마련/ 이 제학생총회와 학교는 선의의 발전경쟁을 해야 합니다.

총여학생회

'새새대 여학생운동'

그 봉화를 올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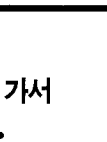
정 이선희 〈수학3〉

■약 력■

73년 서울 출생.
92년 영등포여고 졸업.
92년 사학과 입학.
93년 사학과 여학생회장 역임.
94년 문리대 여학생회 학술부장 역임.
94년 문리대 여학생회 학술부장 역임.
94년 제9대 총여학생회 부총여학생회장으로 입후보.

■공약

1. 사회 진출에 대한 구체적 준비와 고민의 장-취업학교
2. 여학생들의 성쌓기-소모임 강화부 신설
   단대 대표들의 모임 정형마련
3. 여성학다운 여성학-총여학생회 주체로 강의 평가
   여성학강사 모임과 연계
4. 메사업시 남학생 참여의 자리마련에 대한 고민
5. 창조적 자기표현의 공간마련-여성문화제의 발진적 계승



부 박현희 〈사학3〉

■약 력■

72년 서울 출생.
91년 송파 여자고등학교 졸업.
92년 수학과 입학.
1학년 여학생 대표 역임.
93년 수학과 여학생회장 역임.
94년 문리대 여학생회 기획부장 역임.
94년 제9대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장으로 입후보.

퀴즈단신

졸업준비금 최종마감

서울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준비금 최종마감일을 30일로 확정했다.

졸업준비금은 앨범비 4천3백원, 졸업장케이스 1천5백원, 장학금 2천원, 비디오 앨범 1만5천6백원으로 모두 5만9천4백원이다. 졸준위(위원장 전형섭 미교 4)는 졸업 당일 앨범을 판매하던 예년과는 달리 졸업준비금을 납부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앨범을 제작하여 일체의 판매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앨범 인쇄는 30일부터 시작되고 현재 작업은 80%정도 진행되고 있다.

한그림 전시회

서울캠퍼스 전시창작동아리 한그림은 가을만화전시회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학생회관 4층 여백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만화에 대한 인식제고라는 취지로 매년 개최되는 정기행사이다.

문맥문집발간

서울캠퍼스 문예창작동아리 문맥은 다섯번째 문집 '겨울나기'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발매하고, 오는 30일에는 작품평가회도 갖는다.

이번 문집 '겨울나그네'에는 시 44편, 소설 1편, 수필 1편이 수록되어 있다.

학생회관 4층 여백에서 열릴 작품발표회는 오후6시부터 9시까지 시낭송과 작품평가모 진행된다.

생물과 학예술제

생물학과 학생회는 오는 24, 25일 양일간 복지회관 공연장에서 오후 1시부터 학예술제를 개최한다.

24일 학술제에선 곤충의 구애행동과 광수용기, 조류생식과 진화에 대해 학생들의 주제발표가 25일 예술제에선 연극과 노래패 '새벽소리'의 풍일을 주제로한 공연이 각각 있을 예정이다.

가스펠 콘서트

수원캠퍼스 종교동아리 가스펠은 오는 21일 오후 6시30분 종모5가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제1회 가스펠 콘서트'를 개최한다.

극동방송과 국민일보가 후원한 이번 공연은 '그 부르심 안에서'라는 주제로 찬양발표회(복음성가), 드라마, 관토마임 등이 꾸며질 예정이다.

탈무드 공연

수원캠퍼스 록그룹 동아리 탈무드는 오는 22일 5시 공대 시청각실에서 '제20회 가을정기공연'을 갖는다.

ELS신촌 '95년1월3일 개원예정

영어는 영어를 쓰는 나라에 가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국에 가지않고도
미국에 간것과 같이 가르치는

ELS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회생그룹에게 영어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방대한 영어습득의 물을 맛보도록 도와드리며, 또한 어떤 언어에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여행의 목적 전달'을 할 것인 가 "를 여러분께 가르쳐드릴 것입니다."

David Rogers
National Director
ELS Language Center

취업과 유학준비는 ELS에서 …

■ ELS란 "English Language Services"의 약칭이며 지난 30여년 동안 전세계 100여 만명의 학생, 직장인에게 영어를 가르쳐 온 세계적인 영어교육 전문 어학기관입니다.

■ ELS회화 교수진은 전원 TESL(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경험이 풍부한 Native Speaker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학습규모는 12명 내외로 영어로만 수업진행, 철저한 집중학습, 강은 수준 학생끼리의 Class 편성으로 미국 현지와 똑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 ELS PROGRAM
* ELS 집중영어코스
1) 1일 6시간 INTENSIVE COURSE (LEVEL상 1개월)
2) 1일3시간 SEMI-INTENSIVE COURSE (LEVEL상 2개월)
●미국 현지 LANGUAGE COURSE와 똑같은 방법으로 수업진행
●해외교사에 의한 LEVEL별 반편성 ●12명 내외의 소수인원
●회화, 문법, LAB, READING, WRITING 등 5개 과정
●LEVEL당 120여분 이수할 학생에게는 수료증 발급
●주수업 NATIVE SPEAKER에 의한 팀 교육
●개 SESSION 실력고사 발급

* ELS CONVERSATION COURSE (1일2시간 LEVEL상 3개월)
●12명 내외의 소수인원 ●우수한 NATIVE SPEAKER에 의한 집중회화
●해외교사에 의한 LEVEL별 반편성 ●주 SESSION 실력고사 발급

* ELS TOEFL 종합반 (1일3시간 LEVEL상 2개월)
●해외교사에 의한 LEVEL별 반편성
●한반 15명 내외의 소수 CLASS운영
●과목별 주당 출석
L.C. VOCABULARY 1시간 READING - 1시간
STRUCTURE - 1시간
●매주 실전모의 TOEFL 실시

ELS USA
23개 캠퍼스
ATLANTA
BOSTON
CHICAGO
CLEVELAND
DENVER
HOUSTON
INDIANAPOLIS
MELBOURNE
MIAMI BEACH
NEW YORK CITY
NORFOLK
OAKLAND
OKLAHOMA CITY
ORLANDO
THE LOS ANGELES
SPECIAL MINI-PROGRAMS
ST. PETERSBURG
SAN DIEGO
SAN FRANCISCO
SANTA MONICA
SEATTLE
WASHINGTON, D.C.

회심탐조센터·뉴스위크 산하
KAPLAN 교육센터
"이제부터는 미국에 유학가지 않고도 워싱턴포스트, 뉴스위크 산하 그룹이 직영하는 카플란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ELS는 YBM/시사영어사 와 미국 카플란 교육센터와의 제휴에 따라 주요 프로그램을 국내에 단독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5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카플란 교육프로그램은 미국의 일류대학, 대학원 입학 자격시험과 미국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KAPLAN PROGRAM
GMAT / GRE
CGFNS / NCLEX-RN
SAT
문의처 : ELS서초 (02)585-0509

일·본·어·집·중·코·스
일본어는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알아보는 일본어중 국민성 개발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일본어 전문코스입니다.
●본격집중코스 (1일4시간)
●일본인 회화코스 (1일2시간)
●기초일본어코스 (1일2시간)
종로 (02)278-0509, 서초 (02)585-0509
부산 (051)464-0509, 대구 (053)743-0509

YBM 영어교육 1번지 시사영어사 직영 어학학원
ELS종로 (02)278-0509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ELS종로
ELS강남 (02)555-0509 강남구 역삼동 ELS강남
ELS서초 (02)585-0509 서초구 서초동 ELS서초
ELS대구 (053)743-0509 대구 중구 ELS대구
ELS부산 (051)464-0509 부산 ELS부산
ELS신촌 (02)323-0509 신촌역 ELS신촌